



시스코 'UCS' · '넥서스' 도입 ...
관리용이성 · 비용효율성 높아 중소기업 위한 서비스 적합

“유연한 클라우드 인프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더존IT그룹의 클라우드 사업을 주도하는 더존비즈온은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며, 그 첫번째 단계로 자사의 기업경영 정보화 솔루션 ‘아이플러스(iPLUS)’를 가상화 기술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연초 출시한 ‘스마트택스 OS(Smart TaxOS)’와 4월 출시하는 ‘스마트비즈 OS(Smart BizOS)’가 그 대표적인 서비스며, 더존의 주요 고객인 세무회계사무소와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평

가된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융합전략기획부 부장은 “스마트택스 OS는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소프트웨어 서비스며, 스마트비즈OS는 ERP·그룹웨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용 시스템을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한다”며 “IT 관리자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는 필수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더존소프트컴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더존IT그룹(대표 김용우 www.duzon.co.kr)은 세무회계프로그램 전문기업으로 매년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2000년대 초반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ERP, IFRS, 정보보안, e-팩스, e-뱅킹, QR코드, 모바일 솔루션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해왔다. 2011년 강원도 강릉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인터넷 데이터센터(IDC)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D-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번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김선애 기자 · iyamm@datanet.co.kr |

민첩성 · 관리용이성 · 비용효율성 중요하게 검토

이 서비스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최초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로 꼽힌다.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부분 인프라 서비스(IaaS)며,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대부분 ASP에 가깝거나 극히 제한된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용 SaaS를 위한 IT 인프라 구성이나 데이터센터 운영방법, 서비스 제품 개발, 과금기준 등을 산정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국내 선례가 충분한 편은 아니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매우 많다. 서버 한 대에 몇 대의 가상머신을 운영할 것인지 결정할 때, 서비스 사용자 규모와 서비스하는 업무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CPU당 과금하는 경우가 있고, 가상머신의 비율에 따라 과금하거나 실 사용자 기반으로 과금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비용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산한 후 설계하지 않으면 과다한 운영비용이 발생해 클라우드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사용자 규모를 예측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가상머신을 쉽게 생성하고 폐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 대의 서버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상머신의 숫자는 업무 특성, 혹은 동시 접속하는 사용자의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해 자동으로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관리 복잡성이 증가해 장애 포인트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클라우드 인프라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더존비즈온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솔루션을 채택하기 위해 여러 벤더의 제품을 대상으로 개념검증(POC)을 실시해 시스코의 x86 서버인 'UCS'와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스위치 '넥서스(Nexus)'를 선택했다.

시스코는 UCS에 VM웨어의 가상화 솔루션인 v스피어(vSphere), 넷애플의 스토리지 시스템을 결합한 '플렉스포드(FlexPod)'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를 구축했다.

그룹 계열사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솔루션 선정 당시 더존비즈온은 플렉스포드와 같은 개념의 다른 패키지 솔루션도 다양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플랫폼이 통합되지 않아 관리 포인트가 많고 운영이 복잡하

며, 도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스코의 경우, 유니파이드 패브릭 아키텍처를 통해 단일 플랫폼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할 수 있어 더존비즈온이 요구하는 클라우드의 민첩성 · 유연성 · 비용효율성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유니파이드 패브릭 아키텍처는 FC와 이더넷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FCoE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네트워크 접근이 이뤄지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SAN과 NAS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시스코 UCS에 최적화된 넷애플의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를 통해 자동으로 SAN-NAS 전환이 가능하다. SAN/NAS를 구분해 인프라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 인프라 도입비용이 낮아지고 관리 편의성이 높으며, 운영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송 부장은 "다른 벤더에서 제안한 패키지는 각각의 구성요소가 분리돼 있어 관리 포인트가 많고 운영이 쉽지 않았다. 플렉스포드는 모든 인프라가 단일 플랫폼에 구축돼 있으며, 직접 데이터센터에 가서 서버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서버를 관리 · 모니터링 할 수 있어 관리업무가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플렉스포드의 이러한 특성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뿐 아니라 더존의 각 계열사 IT를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시스템 개발이나 테스트 업무를 할 때, 예전에는 실제 장비를 구입해서 배포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했다. 플렉스포드를 이용하면 쉽게 가상머신을 만들어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으며,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인프라가 자동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관리자의 수작업을 최소화하면서 현업이 빠르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최근 더존의 한 계열사에서 백업 스토리지를 추가로 요청했는데, 간단하게 가상 스토리지를 할당하면서 클라우드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가상화 도입 이전에는 백업 시스템에 필요한 스토리지를 주문하고 배송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대외 고객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플렉스포드의 유연성과 민첩성이 더욱 높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갑자기 고객이 늘어난다 해도 가상화 영역에서 필요한 인프라를 쉽게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INTERVIEW



“국내 대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로 자리매김”

Q. ‘스마트택스OS’와 ‘스마트비즈OS’에 대해 소개하면.

더존비즈온의 첫번째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스마트택스OS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직원들의 재택근무나 원격지 근무, 프리랜서 채용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것이다.

스마트비즈OS는 ERP, 그룹웨어 등 기업의 업무용 시스템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IT 관리인력과 조직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자사의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면서 IT를 안전하고 비용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Q. 이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구성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은.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안정성과 비효율성에 중점을 두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규모로 운영될수록 수익이 높아지지만, 사업의 초기인 만큼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문제도 중요하게 검토했다. 서버 한 대에 몇 대의 가상머신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라이선스 비용이 큰 폭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Q. 시스코 UCS와 벡서스 스위치 선택 이유는.

시스코는 유니파이드 패브릭 아키텍처를 통해 어떠한 네트워크 환경도 단일한 플랫폼으로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어 매우 쉽고 간편하게 클라우드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념검증을 실시한 다른 벤더의 클라우드 패키지 제품은 구성요소마다 다른 관리환경을 제공하며 구성이 복잡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Q. 시스템 구축 효과는.

더존비즈온의 클라우드 컴퓨팅은 대외고객 서비스 뿐 아니라 그룹 내 계열사 IT 인프라 운영에도 사용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축한 후 시스템의 유연성과 확장성이 높아 운영 효율성이 매우 높아졌다.

실례로 최근 한 계열사에서 백업 스토리지를 요구했을 때, 가상머신을 생성·할당하는 것으로 관리조직의 일이 끝이 났다.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이전 환경이었다면, 스토리지를 주문하고, 제품이 도착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설치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대외서비스의 경우 클라우드의 효과는 더 높아진다. 고객사별로 각각 다른 가상머신을 할당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규모가 갑자기 늘어나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송 호 철
더존비즈온 융합전략기획부 부장

Q. 향후 계획은.

더존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개자로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특히 중소기업 고객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중소기업 고객의 니즈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되고자 한다.

Q. 본지 독자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고객의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점이다. 고객의 IT를 더욱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SMB, 핵심 비즈니스 집중 위해 클라우드 이용할 것”

더존비즈온은 스마트택스OS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한 공중파 방송에서 한 시민이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만큼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받는다는 증거라고 더존비즈온은 강조한다. 4월 출시될 스마트비즈OS도 기존 고객의 니

즈를 반영했기 때문에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 부장은 “중소기업은 IT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IT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높다. 클라우드의 효과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중소기업은 자사의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NT**